

정읍시 시민 정책제안 수상작 8건 선정

388건 접수...김민재씨 '팻 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민부문 대상

정읍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 8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주제로 한 특별주제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 개선·시행해야 할 정책을 주제로 한 일반주제로 분야를 나눠 시행해 총 388건의 다채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 8건(시민 4건, 공무원 4건)을 선정하고 6일 소통의 날에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민 부문은 정읍 팻산업 전문인력 양성(김민재)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무질서한 시정 홍보물 방지를 위한 시청사 승강기 입구에 전자안내판 설치(최진), 난잡한 읍면동 행정계시판을 시민성 좋은 스마트 행정계시판으로 교체(김선희),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 개선(김현수)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개선(김소정)이 우수상, 제2청사 또는 의정근무자를 위한 분경 공유오피스 마련(홍원숙),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우미정), 복합놀이시설 '천사하어 로즈' 사전 예약제 도입(이창현)이 장려상으로 최

종 선정됐다.

시민 부문 우수상을 받은 '정읍 팻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안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공무원 부문 우수상을 받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개선' 제안은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다.

이하수 정읍시장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제5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남원시 관계자들이 홍보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한중무역박람회서 남원의 맛·멋 알렸다

한복·목공예품 등 홍보

남원시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영성시의 '제5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해 남원의 맛과 매력을 알렸다.

영성시는 중국 강소성에 위치한 인구 800만의 경제·산업도시로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곳이다.

남원시와는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우호를 증진해 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국제상회가 주최하고 영성시인민정부와 한중산업단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한국 기업관, 한중산업전시관 등이 운영되고 한국 후호도시 경제무역협력교류회가 개최됐다.

남원시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화인당 한복 전시 및 체험을 메인으로 왕과 왕비가 입었던 곤룡포

와 흥원삼, 한복인형을 전시하고 쾌자와 아동용 한복 입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남원시 홍보관을 찾은 한 방문객은 "한국 드라마에서만 봤던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어 매우 신기했으며, 한복의 고운 자태와 아름다운 색에 계속 눈길이 간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과 무형문화재 남송 박강용 선생의 작품을 전시해 남원 옷칠 목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했고 광한루 누각 만들기, 춘향이와 이봉룡 인형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남원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남원의 맛과 매력을 널리 알렸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영성시를 방문했는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남원시와 영성시의 우호교류가 다시 활발히 추진돼 양 도시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청소년 흡연예방 쇼츠영상 공모' 당선작 선정·시상

남원시가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주제로 실시했던 '청소년 흡연예방 쇼츠 영상 공모전'의 당선작 11점을 선정, 지난 6일 시 '소통혁신의 날'을 맞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4일~10월2일 응모된 작품 중 주제연관성, 창의성, 흥미성, 완성도 등을 고려한 심

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7점 등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흡연 예방교육 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남원 금연 쇼츠'로 검색할 경우 시청이 가능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용역 보고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6일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개선 및 감사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연구회는 서향경을 대표 의원으로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오승현, 한선미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정읍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민간 위탁 개선 방안 및

조례 개정 방안, 성과평가 및 감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향경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 및 연구 용역을 통해 정읍시의 민간 위탁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나아가 4개월간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조례 정비, 성과평가 및 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위탁 제도를 개선해 정읍시의 선진 민간 위탁 제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이탈리아 페스툼 국제고고학관광전 표창장

고인돌유적 등 7대 보물 홍보

고창군이 '이탈리아 페스툼 국제고고학관광전'에 참가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과 유네스코 인정 7개 보물을 세계에 알렸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유일의 고고학분야 전시회인 국제고고학관광전에 참여해 매력적인 홍보전시 부스로 전시계연을 사로잡으며 100여개 부스 중 유일하게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째인 페스툼 관광전은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고고학분야 국제 전시회다. 유네스코와 세계관광협회, 이탈리아 문화유산부가 후원하며, 전세계 25개국에서 150여명의 전시자와 100여회의 컨퍼런스와 미팅, 120여명의 기자, 1만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2023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2회 연속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한국의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에서는 대형 LED 미디어월에서 펼쳐지는 고인돌이 들려주는 이야기 영상 관람과



황민안(맨 오른쪽) 고창군 관광산업과장, 살레르노(오른쪽 두번째) 광역시의원과 이지연(왼쪽 두번째) 고창군 세계문화유산팀장이 전시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해설사가 들려주는 세계유산과 고창, 고인돌 스크래치 페이퍼 체험 등 고창이 품은 유네스코 7개 보물도 홍보·전시하며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폐막식에서 고창군은 25개국 100여개 홍보부스 중 가장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부스로 인정받으면서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의원과 조직위원장 공동명의로 표창장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탈리아 페스툼 국제고고학관광전 참가를 통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품격을 높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고인돌유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의 거석문화 속 고창고인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명하여 고창고인돌유적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일자리박람회...구직자 500여명 성황

이엔지푸드 등 기업도 17곳 참여

고창군이 일자리문제 해소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7일 실내체육관에서 기업 채용부스 17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채용설명관 5개, 일자리 유관기관 홍보부스 10개, 취업지원부스 3개 등을 마련하고 '찬란하고 풍요롭게 2023 고창군 일

자리 페스티벌'을 열었다.

심덕섭 군수는 박람회장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막식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일자리 페스티벌은 고창군로컬잡(JOB)센터가 주관하고 고창군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고창군시니어클럽,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 등 참여했다.

기업에서도 참바다영농조합법인, 상하농원, 석정웰파크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매일유업 상하공장, 이엔지푸드, 리더스산원, 연경전자, 태경 등 17곳이 함께했다.

정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일자리 구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는 군민 500여명이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

이날 취업박람회에선 각 기업체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참여 유관기관에서도 이력서 작성과 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나를 움직이는 진실
세상을 움직이는 신문

균형을 잡는 일은 어렵습니다.
진실을 가려내고 밝히는 일도 어렵습니다.
균형잡힌 보도와 진실된 정보를 통해
신문이 당신과 세상을 움직입니다.